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한국어 「하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표현에 대한 연구



2009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배수진

문학석사 학위논문

한국어 「하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표현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손 동 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배 수 진

배수진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2월



주심 최건식 (인)

위원 박영숙 (인)

위원 손동주 (인)

목 차

Abstract	iii
1. 연구목적 및 방법	1
2. 선행연구	4
2. 1 「하다」와 「する」와의 관계	4
2. 2 「하다」와 「단순동사」와의 관계성	6
3. 「하다/する」동사의 정의와 사전적 의미·특징	9
4. 「하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표현	19
4. 1 단순동사와 대응하는 경우	19
4.1.1 「やる」와 대응하는 경우	19
4.1.1.1 인칭대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23
4.1.1.2 동작성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24
4.1.1.3 비동작성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24
4.1.2 「なる」와 대응하는 경우	25
4.1.2.1 동작성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28
4.1.2.2 비동작성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28
4.1.2.3 관용구와 결합하는 경우	29
4.1.2.4 부사와 결합하는 경우	30
4.1.3 「ある」와 대응하는 경우	30
4.1.3.1 어떤 사항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	33
4.1.3.2 선행요소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34
4.1.4 「とる」와 대응하는 경우	34

4. 2 그 외 대응하는 표현	37
4.2.1 관용적 표현	37
4.2.2 「～ている」형과 대응하는 경우	44
4.2.2.1 변화의 결과상태	46
4.2.3 사역형과 대응하는 경우	47
4.2.3.1 「시키다」형	47
4.2.3.2 「-게 하다」형	49
4.2.3.3 「させる」형	50
4.2.4 기타표현과 대응하는 경우	57
5. 결론	60
참고문헌	62
예문출전	64



A Study of Japanese Expressions Corresponding to Korean 「-hada」

Su Jin Ba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 Ju Son

Abstract

This paper studied, even though Korean 「-hada」 and Japanese 「する」 (suru) play a very basic, productive role and have a one-to-one relation, how other corresponding expressions apart from 「する」 are formed and expressed. In a result of the study, Korean 「-hada」 corresponds with Japanese simple verbs like 「やる」 (yaru)・「なる」 (naru)・「ある」 (aru)・「とる」 (toru), other 「idiomatic expressions」, 「～ている expressions」 (te-iru) and 「causative expressions」 etc. At an usage ratio, 「やる」・「なる」・「ある」・「とる」 have the majority cases where this paper focused on to compare and analyze. As the Japanese expressions for 「-hada」, among totally 902 examples, 143 examples were quoted in this paper. 「やる」, which occupies in the most cases at the usage ratio, were used 121 times, 「なる」 were 82, 「ある」 were 95, and 「とる」 were 24. Corresponding to the simple verb, 「やる」 combines mostly with person pronouns, verbal nouns, non-verbal nouns as a preceding factor, 「なる」 combines with verbal nouns, non-verbal nouns, idiomatic phrase, adverbs in many cases, 「ある」 combines in case that an action of a subject directly affects an object, resulting in the existence is accepted or in case that a preceding factor has a certain characteristics or property. In case of 「とる」, it basically means own or take. However, depending on a preceding factor, it could mean take food into one's body. That is, it is used for 「食べる」 (taberu)

Therefore, in the paper, Japanese words corresponding to 「-hada」 were studied on changes in the corresponding phase, depending on the context or situation. Noting that depending on preceding factors, in some cases, 「hada/

する」 may not correspond each other, the paper researched how Korean 「-hada」 corresponds to the Japanese expressions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1. 연구목적 및 방법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구조나 어순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구조적인 면에서 매우 유사함을 보이고 있으나 엄밀하게 내부를 검토해 보면 상이함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사「する」는 일본어 동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語라고 할 수 있다. 森田良行(1989)는 「する」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する」のような基本語は、概念がはなはだ広くあいまいで
抽象的であり、文型によってさまざまな個別的意味を帯びてくる¹⁾

이러한 多意味・多機能的인 「する」는 어떠한 선행요소와도 결합할 수 있다. 「하다」와 「する」는 모두 사전적 의미로는 동작을 행한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단일동사이나, 독립해서 쓰이기보다는 주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나 어근에 붙어 동사(또는 형용사:하다)로서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 준다.

본고에서는 「하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동사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하다/する」는 서로 대응하지만, 선행요소에 따라서는 「하다/する」가 대응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어서,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하다」에 대응하고 있는 일본어 표현이 する만이 아니라, 선행요소에 의해서 やる・なる・ある・とる(단순동사)와 결합 가능한 경우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선행요소의 의미적 성격에 따른 대응양상의 변화와, 문맥・상황에 따른 대응양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1) 森田良行(1989), 『基礎日本語辞典』 角川書店, P.249

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선행요소가 한자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態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의 대조연구는 그 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하다」가 일본어로 「する」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거기다 스기모토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다.

(1) 'それに杉本は酒もタバコもやらない。(『予』 p.18)

(2) 알리바이를 조사할 때에는 여기에 약간 폭을 넓힌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를 중시하도록 하였다。(『白』 p.29(상))

(2) 'アリバイを調べる際には、これに少し幅を持たせた午後五時から八時までの間を重視することになった。(『白』 p.28)

(3) 자신을 향한 변질은 때로는 진보이며 때로는 미덕이기까지 하다.

(3) 'じぶんに向ける変節は、ときには、進歩であり、ときには、美德でさえある。(『日』 p.16)

(4)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다. 더러는 책상에 앉아 메모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 p.82(상))

(4) '話をする人もいない。中には机に向かってメモをとる人もいたが、(『海』(上)p.87)

이와 같이 한국어의 「하다」가 「する」뿐만이 아닌 「やる・なる・ある・とる」와 같은 동사와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관용적 표현, ~ている 표현, 사역표현, 기타표현등과도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하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표현을 문학작품, 사전,

논문 등에서 발췌하여 용례를 분석하고, 또한 선행요소의 의미적 성격에 따른 대응양상의 변화와, 문맥·상황에 따른 대응양상의 변화 등을 통해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단, 형용동사 静かである와 같은 경우에는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2. 선행연구

2. 1 「하다」와 「する」와의 관계

「하다」와 「する」의 대조연구는 주로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져 왔다.

- ① 「하다/する 용법의 대조연구」
- ② 「하다/する의 대응관계에 따른 대조연구」
- ③ 「態(Voice)의 대조 관점에서 본 하다/する」

2.1.1 生越直樹 (1982)

한자어 サ変動詞의 능동형과 수동형의 의미적 연관성 및 상이점을 「하다」동사와의 대조를 통해 고찰하고 한자어 サ変動詞에 능동태, 수동태 이외에 중상태(「되다」와 대응이 성립하는 「する」의 경우)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する」형에는 주어가 동작주인 경우(능동)와 주어가 동작주가 아니며 주어에 대한 적극적인 작용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중상)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 ② 「する」형, 「される」형의 구별은 주어에 대한 적극적인 작용의 유무에 의한다. 주어에 대한 작용이 있고 동작주와 대상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される」형이 쓰이고 주어에 대한 작용이 없고 동작주와 대상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する」형이 쓰인다.

- ③ 「하다」형, 「되다」형의 구별은 기본적으로는 주어가 동작주일 때 「하다」형, 동작주가 아닐 때 「되다」형이 쓰인다. 단 자동사에서는 동작, 상태변화의 실현에 있어 가장 강하게 작용한 힘이 주어가 가지는 힘으로 간주될 때는 「하다」형, 주어 이외의 힘으로 간주될 때는 「되다」형이 쓰인다.

위와 같은 ②에 있어서의 「する」형, 「される」형의 구별기준은 전형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서 「する」와 「される」의 치환이 가능한 「強大国によって 両国間の平和が実現された(実現した)」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이 곤란하다는 난점이 있으며, ③의 구별기준도 「하다」와 「되다」의 치환이 가능하며 주어가 가지는 힘을 인정하기도 곤란한 「책이 도착하였다(도착되었다)」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이 곤란하다는 난점을 지닌다.

2.1.2 劉恩聖(2000)

「하다」와 「する」의 공통점 및 상이점에 대하여 語形成의 측면, 통어적인 측면 등에서 체계적,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한국어에 비해 일본어에 있어서 명사적 표현이 보다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찰을 병행하고 있다. 語形成의 측면에 있어서는 선행요소가 한자어인 경우에는 동사화가 양국어 모두 생산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통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다」는 타동사로서의 용법밖에 가지지 않으나 일본어에는 자동사 용법의 「～がする」구문이 존재한다는 것과 한국어의 「(～을)～로 하다」구문에 비해 「(～を)～に/とする」구문이 보다 많이 사용된다는 점 등을 들어 「する」가 「하다」보다 의미기능이 넓으며, 일본어는 명사에 중점이 놓이는 명사적 표현이 많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名詞化語+(조사)하다」 형식이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連用形名詞+(助詞)する」 같은 명사적 표현은 サ変動詞화로 이어지나 連用形名詞를 선행요소로 가지는 명사적 표현 및 サ変動詞가 일본어에 많은 배경은 일본어 동사의 생산적인 명사화 현상과 함께 「する」의 조어력에 의한 것으로, 이 점이 한국어의 「하다」와 크게 다른 「する」의 특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유은성은 「する」가 「하다」보다 전체적으로 보아 의미기능이 넓으며 語形成에 있어서도 造語力이 높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론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する」와 「하다」를 대응 유형별로 세분하여 검토해 보면 語形成에 있어 「する」보다 「하다」가 생산성이 높거나 語結合에 있어서도 「する」보다 「하다」의 허용 범위가 넓은 경우 등이 적지 않게 관찰되기 때문이다.

2. 2 「하다」와 「단순동사」와의 관계성

「하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동사 「やる・なる・ある・とる」의 체계적인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우선 본고에서는 기초 일본어 사전을 중심으로 「하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동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なる동사에 대한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2.2.1 やる와의 관련성

森田良行(1989)는 「やる」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行為を進める「やる」がある。これは「…ヲ…こやる」という移動・進行 到達点「～に」が設定されない文型の場合である。「手紙をやる」の場合は、移動させられる対象が「手紙」で、それを「相手に」対して届くようにする行為であるが、「文学をやる」の場合は、行為する対象が「文学」で、特に到達点「～に」は設定されない。「ヲ」格に立つ語は行為を表す名詞で「会議をやる」「商売をやる」「ゴルフをやる」「マニキュアをやる」等、意志的な動作・行為によって成立する状況に限られる。²⁾

2.2.2 ある 와의 관련성

森田良行(1989)는 「ある」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事柄の成立の場合は、「映画会はどこであるんですか／講堂であります」「横丁でけんかがあった」「外で宴会があっても、決して外泊することはない」「…こある」は存在するという状態の叙述。「…デある」は、行為・作用がそこで行われるということの叙述。したがって、そのどちらにもなりうる事柄は「…こ／…デ」両形が可能。「三丁目のほうで／ほうに火事があった」「トルコで／トルコに地震があったそうです」「で」に導かれる動詞はふつう動作動詞のため、「ある」のような状態動詞がきても、存在ではなく動作・作用として働いてしまう。「ある」と同様「存在する」も、「…デ存在する」となる例がたまに見られる。³⁾

²⁾ 森田良行, 前掲書 P.1165

³⁾ 森田良行, 前掲書 PP.90-91

2.2.3 とる 와의 관련성

森田良行(1989)는 「とる」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対象とする事物に作用・行為を加えて、自己側の領域にうつす。その結果、対象がその位置から失せたり、減じたりする場合と、なんら異同を生じない場合とがある。その対象とうつし方によって、種々の漢字表記が使い分けられている。「メモ、寸法、指紋、脈、録音、写真、言葉の意味、型…をとる」「形を両用紙にとる」「ノート、テープ…にとる」事物そのものの位置は変えずに、また、手を加えずに、その形や内容をそっくり他にひかえる。オリジナルには手を加えずに、コピーを作ること。とれた結果が「を」格とる事物に来る。とられるものは“事柄や実体のない事物”で、文面に表せば「講義をノートにとる」「歌をテープにとる」と「とる場所にとる」文型となる。単に「歌をとる」と独立して用いることはない（「テープにとります／何を？／あなたの歌をとります」のような文脈でなら使用可能）。⁴⁾

⁴⁾ 森田良行, 前掲書 PP.821-822

3. 「하다/する」 동사의 정의와 사전적 의미 · 특징

「하다」는 문법적 비중이 크고 쓰임이 다양해서 일찍부터 국어학자들의 문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관심을 끌어들였다. 「하다」에 대한 연구는 「하다」의 문법적 성격에 대한 분석 및 이와 관련된 의미·용법의 고찰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최현배(1937)는 「하다」의 문법적 기능을 크게 주동사, 보조동사 및 보조형용사, 접미사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① 운동을 한다. (움직씨)
- ② 일하다. 나무하다. (움직씨로 만드는 뒷가지)
- ③ 암전하다. 정하다. 가난하다. (그림씨로 만드는 뒷가지)
- ④ 남의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다. (지움 도움 움직씨)
- ⑤ 두 시간씩 공부하게 한다. (하임 도움 움직씨)
- ⑥ 이 약을 먹어야 한다. (마땅함 도움 움직씨)
- ⑦ 나도 가기는 한다. (그리여김 도움 움직씨)
- ⑧ 잘난 체(척)한다. (거짓부리 도움 움직씨)
- ⑨ 죽을 번 하였다. (지나간 기회 도움 움직씨)
- ⑩ 거룩하지 아니한가? (지움도움 그림씨)
- ⑪ 그가 너무 약한 듯하다. (미롭도움 그림씨)
- ⑫ 크기는 하다. (그림여김 도움 그림씨)
- ⑬ 먹을 만하다. 먹음직하다. (갑어치 도움 그림씨)

이러한 논의는 ‘하-’의 의미와 문법범주를 설명하는데는 실용적이지만 본동사와 접사, 보조동사와의 관련성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은 표면적 구조를 대상으로 한 분류방식이기 때문이다.

서정수(1975)는 「하다」의 본질적 기능은 형식동사로서의 기능과 대동사로서의 기능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기능의 구분은 선행요소의 의미적 특질과 관련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⁵⁾



비실체성 선행요소에 첨가되는 「하다」는 형식동사의 기능을 가지며 실체성 선행요소와 함께 쓰이는 경우는 대동사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실체성 요소란 사람, 동물, 책상 같은 구체적인 어휘부터 시간 같은 추상적인 어휘까지 가리키는 실질 명사이다. 비실체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운동, 변화 등이 있다. 이러한 어휘들은 사물의 움직임이나 상태,

5) 서정수,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P.13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고 「-하다」와 잘 어울린다. 또한 상태성 요소란 안전, 행복 등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가 되는 말이다. 한편 비상태성 요소는 다시 동작성 동사와 과정성 동사로 나누어진다. 동작성 동사⁶⁾란 능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과정성 동사란 수동적인 상태적 변화를 가리키는 말을 의미한다. 형식동사로서 「하다」의 기능에 대해서는 상태성이나 동작성의 서술적 의미를 가진 선행요소에 첨가되어, 동사의 형태를 갖추게 하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보고 있다.

대동사로서의 「하다」의 기능에 대해서는 선행요소가 암시하는 적절한 동사를 대리한다고 하며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규정된 특정한 동사를 대신하는 경우에 한하여서 쓰여진다고 기술하고 있다.

김영희(1984)는 「하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① 「하다」는 대동사가 아니라, 실질동사로서 어휘 의미론적 계층 구조상의 상의어인 포괄 동사이다.
- ② 「하다」는 그러하다 등의 일반 대동사들처럼 조응 대동사나 상황 대동사로서의 지시 기제를 갖지 못한다.
- ③ 접속 기능을 갖고서 조응 대동사처럼 쓰이는 「하다」도 실제로는 조응대동사 「그러하다, 그리하다」의 「그러, 그리」가 지시사 지우기로 지워진 의사 대동사이다.

따라서 서정수(1975)가 주장한 「하다」대동사설은 대용어(pro-form)의 주요한 특징인 대치기능과 지시기제 중 대치기능만을 중시하고 지시기제를 소홀히 한 불완전한 학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심재기(1982)는 어형성론적 입장에서 「하다」를 동사화소의 하나로 보고 있다. 즉, 파생접미사적 기능

⁶⁾ 서정수가 말하는 동작성 동사란, 운동, 활동, 임명, 명령, 공부, 거부, 결정, 건축, 검사, 입학, 출석, 결석, 설득, 식사 등을 나타내는 능동적인 움직임을 말한다.

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고, 문법적 기능을 「서술기능 대행」 「서술기능 완결」 「서술기능 이행」의 3가지로 통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① 「서술기능 대행」은 실체성 명사와 결합하여 어용론적 상황을 전제로 한 관용적 숙어화의 일종이라고 하고 있다.
- ② 「서술기능 완결」은 비실체성 명사를 선행요소로 하고, 일차적으로는 서술기능을 수행하고, 이차적으로 선행요소의 의미를 복사투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서술기능 이행」은 「슬프다→슬퍼하다」 「기쁘다→기뻐하다」와 같은 형용사를 타동사화하는 경우의 「하다」의 기능을 가리킨다.

정원수(1994)는 「하다」를 동사로서의 기능과 파생접미사로서의 두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X+하다」가 지니고 있는 의미의 포괄성으로 인해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고 있고, 두 특성 사이에는 중간범주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하다」의 선행연구를 보면 서정수(1975)의 연구가 크게 영향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하다」의 통어론적, 의미론적 기능의 기술에 중점을 두고 형식동사인지, 대동사로 볼 것인지 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음으로, 「하다」에 대해 「する」 외에 그 외 동사로 대체 가능한 경우를 보면, 「하다」에 「する」가 기본적으로 대응하며 「する」와 교체 가능한 대응동사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일본어의 선행명사가 동작성인 경우 「する」와 교체 가능한 동사는 「する」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의미가 희박하고 술어형식을 만들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는 형식적인 의미의 동사를 말하며 선행명사가 비동작성인 경우는 동작성인 경우와 달리 「する」와 교

체 가능한 동사는 형식적인 의미의 동사가 아니다. 먼저 한국어의 **선행명사가 동작성인 경우**의 대응 예에 대해 살펴보면, 「하다」에 「する/とる」가 대응하는 예이다.

- (1) a. 우리들은 사무실에 돌아와 가벼운 식사를 했다.
b. 僕たちは事務所に戻り、軽い食事をとった(した)。
(2) a. 지휘/기록/예약/복사/커뮤니케이션/노트/메모/리드/(팔)씨름을 하다.
b. 指揮/記録/予約/コピー/コミュニケーション/ノート/メモ/リード/(うで) すもうをする(とる)。

다음은 「する/働く」가 대응하는 예이다.

- (3) a. 폭행/강도질/횡령/부정진료/부정행위/범죄행위를 하다.
b. 暴行/強盗/横領/不正診療/不正行為/犯罪行為をする(働く)。

위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형식적 의미의 「働く」는 「悪行」을 나타내는 선행명사와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する/払う」가 대응하는 예이다.

- (4) a. 운전자는 보행자에 주의를 해야만 한다.
b. ドライバーは歩行者に注意を払わなければ(しなければ) ならない。
(5) a. 고려/존경/배려/관찰을 하다.
b. 考慮/尊敬/配慮/観察をする(払う)。

위의 예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払う」는 정신적, 심리적 활동을 나타내는 선행명사와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국어의 선행명사가 비동작성인 경우의 대응 예이다. 선행명사가 어떤 직무를 나타내는 경우 「する」는 「務める」와 교체가능하다.

(6) a. 한국분이 대표를 하고 있는 볼런티어그룹 「코리아볼런티어」의 스태프로부터 전화가 있었다.

b. コリアの方が代表して(努めて) いるボランティアグループ「 코리아 ボランティア」のスタッフから電話があった。

다음은 「하다」와 「する」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하다」와 「する」의 의미 기능

한국어 「하다」	
타동사	접미사
①정신적·육체적인 활동을 하다, 행하다. 【例】공부를 <u>하다</u> . : 勉強を <u>する</u> . 일을 <u>하다</u> . : 仕事を <u>する</u> .	A 명사에 붙어 그 명사를 동사화하다. 【例】사랑 <u>하다</u> . : 愛 <u>する</u> . 말 <u>하다</u> . : 話 <u>す</u> . 질투 <u>하다</u> . : 嫉妬 <u>する</u> .
②명사와 함께 사용되고, 그 명사와 긴밀하게 사용되는 동사를 대신해 여러 종류의 의미를 나타내다. 【例】술을(마시 <u>다</u>) : 酒を飲 <u>む</u> . 노래를(부르 <u>다</u>) : 歌を歌 <u>う</u> .	B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형용사화 하다. 【例】착 <u>하다</u> . : おとなしく善良 <u>だ</u> . 쓸쓸 <u>하다</u> . : 寂しい.
③분야·직업등에 종사하다. 【例】선생님을 <u>하다</u> . : 先生を <u>する</u> .	
④표정·태도등을 짓다. 취하다. 【例】슬픈 얼굴을 <u>짓다</u> . : 悲しそうな顔を <u>する</u> .	

불손한 태도를 취하다. : 不遜な態度をとる。	
⑤금액·가치를 나타내다. 【例】 사과 한 개에 오십 원하다. : りんご1個50ウォン <u>する</u> 。	
⑥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해서, 하여」의 형태로 이르다. 【例】 점심 때쯤 <u>해서</u> 와 보렴. : 昼御飯時になったら来てごらん。	
⑦조사 「-고」 나 인용문과 함께 사용되어 말하다. 【例】 외출한 사이에 그가 찾아 왔었다고 <u>한다</u> . : 外出していた間に彼が訪ねて来ていたと <u>いう</u> 。	
⑧열거된 명사나 대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가리 어 말하다. 【例】 그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쁘다. : 彼も君も（彼だとか君だとか言うことな く）どちらも悪い。	
⑨생각하다. 【例】 네가 떠났는가 <u>하여</u> 가 보았지. : 君が帰ったかなと思って行ってみた。	
일본어 「する」	
타동사	자동사
①동작·행위를 행하다. 【例】 私たちは毎日、朝起きてから夜寝るま で、いろいろなことをします。	A 「시간의경과」 「금액·가치」를 나타내다. 【例】 1時間すれば帰ってくるで しょう。 【例】 この車は300万円もする。
②직업·역할·담당 등에 종사하다. 【例】 息子が医者をしている。	B (형식적 동사)무엇인가가 일어난다. 또 는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직전의 상태에 있다. 【例】 雨が上がろうとしている。
③어느 상태가 되게 하다. 【例】 娘を教師にする。	C (형식적 동사)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 렇다고 가정하다.

	【例】警察はその事件はすでに解決したことにしている。
④물건이나 사람을 다른 물건이나 사람으로 바꾸다. (어느 것을 무엇으로 바꾸다.) 【例】座ぶとんを枕にする。	D명사나 부사 뒤에 붙어 동사를 만든다. 【例】勉強 <u>する</u> 。運動 <u>する</u> 。お話し <u>する</u> 。 愛 <u>する</u> 。にこにこ <u>する</u>
⑤모양이나 성질을 보여준다. 또는 어떤 모양이나 성질이 된다. (어떤 상태라 보다/형태·색·성질등이 있다.) 【例】彼女は白い歯をしている。	

한국어 ‘하다’ 동사는 타동사와 접미사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일본어 ‘する’ 동사는 타동사와 자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표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양국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타동사로 나타낼 때 동작, 행위를 행하다 / 분야, 직업등에 종사하다가 있다.

‘하다’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거나 마음을 쓰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는다. 어휘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 쓰임에 따라 연상의미가 확장되어 부차적 의미들을 갖게 되는데 ‘하다’는 다른 어휘에 비하여 그 쓰임이 특히 빈번하여 연상의미의 확장화가 많이 일어남으로써 의미의 일반화·형식화·추상화가 많이 이루어져 실질 동사가 아닌 대동사나 형식동사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5) 혼자서 하는 공중 아크로바틱 쇼 같은 거랑 비교하면 기술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공』 p.91)

(5) ‘一人でやる空中アクロバット・ショーなんかには比べれば、技の難易度はそう高くないわけだから。 (『空』 p.30)

(6) 니시모토 후미요를 경찰에 불러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白』 p.77(상))

(6) ' 西本文代を警察に呼び、改めて話を訊くことになった。 (『白』 p.75)

(7) 동급생 등에게 약혼 중인 센지로를 소개하면 누구의 얼굴에나 일순 놀라는 기색이 흐르는 것이 사요코에게는 재미있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다.

(7) ' 同級生などに、婚約中の銚次郎を紹介すると、誰の顔にも、一瞬、驚きの色が流れるのが、小夜子には、おもしろくもあり、得意でもあった。 (『夫』 p.148)

(8) 네 사람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8) ' 四人は、一緒に夕食をとっていた。 (『予』 p.78)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다'에 대응하고 있는 일본어 동사가やる・なる・ある・とる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본고에 필요한 한국어 '하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동사의 용례 추출의 빈도수를 나타낸 표이다.

<표 2> 「하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동사7)

한국어 하다	대응하는 일본어 표현	용례수
	やる	121
	なる	82
	ある	95
	とる	24

7) 본고에 사용된 용례 추출은 p.64-65 예문출진의 작품 속의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하다」는 「する」 외에 「やる」「なる」「ある」「とる」 및 기타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하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표현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4. 「하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표현

4.1 단순동사와 대응하는 경우

4.1.1 「やる」와 대응하는 경우

(9) 저, 라디오의 행운의 숫자라는 걸 듣고 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1층 입구 쪽에서 하고 있어요.

(9) 'ね、ラジオのラッキーナンバーというのを聞いて来たんだけど。ああ、そうですか。一階の入口の所でやってますよ。 (『予』 p.154)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やる동사도 어떤 것을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비슷한 표현이지만 다른 기능으로 사용되어지는「する」와의 비교를 보면,

(10) 仕事を()。勉強を()。⇒「やる」「する」
会議()。⇒ — 「する」

을격을 취할 경우やる・する 두 가지로 표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어 가 가진 의지에 의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する는 을격을 취하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やる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やる는 동사화기능이 없다는 점에서やる, する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음은 「하다」와 「やる」의 기본적인 의미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3> 「하다」와 「やる」의 의미 기능

「하다」의 의미	「やる」의 의미
①정신적·육체적인 활동을 하다, 행하다.	A (人に物を) あたえる。 おもに同等または目下の人に対して用いる。
②명사와 함께 사용되고, 그 명사와 긴밀하게 사용되는 동사를 대신해 여러 종류의 의미를 나타낸다.	B おくる 行かせる 進ませる
③분야·직업등에 종사하다.	C する 行う
④표정·태도등을 짓다. 취하다.	D 収入を得て生活する。
⑤금액·가치를 나타낸다.	E 食べる 飲む 男が使う
⑥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해서, 하여」의 형태로 이르다.	F 「動詞＋てやる」の形で、「同等または目下の人利益を考えて、その人のために…する。」の意を表す。
⑦조사 「-고」나 인용문과 함께 사용되어 말하다	
⑧열거된 명사나 대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가리어 말하다.	
⑨생각하다.	

이와 같이, 「やる」가 행위동사로서의 의미적인 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11)“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고독한 운동이지”하고 그는 설명해 주었다. “이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은 독방에 수감된 죄수들이야.”

(『해』 p.240(상))

(11)′ 「これは世界でいちばん孤独な運動なんだ」と彼は説明してく

れた。「これをもっとも熱心にやるのは、独房に入れられた囚人だ」。

(『海』 p.284(上))

(12)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것은 비겁한 자가 하는 짓이란 말일세.

(『해』 p.263(상))

(12) '現実から目をそらすのは卑怯もののやることだ。(『海』 p.310(上))

(13) 츠구미와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도깨비 우편함 놀이'란 장난을 곶했다. (『티』 p.14)

(13) 'つくみと私は学校の低学年の頃「お化けのポストごっこ」という遊びをやっていた。(『T』 p.16)

위의 예를 보면 의미적인 면에서는 ①・C가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보이고 있다.

(14) “뭐, 베스트셀러를 내면 억만장자가 되긴 하지만.”

“역시, 하는 게 낫겠어.”다리를 다시 끌어당긴다. (『공』 p.273)

(14) '「ま、ベストセラーを出せば億万長者ですけど」

「やっぱりやる」脚を引っ込める。(『空』 p.251)

(15) 내가 오랜 세월 품으로 이 장사를 하고 있는 줄 아나?

(『해』 p.61(하))

(15) 'だてに長年こんな商売をやってるわけじゃないんだ。

(『海』 p.71(下))

(16) 고치에서 서핑숍을 하고 있다는, 오시마씨의 형일 것이라고 나는 짐작한다. (『해』 p.401(하))

(16) '高知でサーフショップをやっているという大島さんのお兄さんなのだろうと僕は推測する。(『海』 p.504(下))

위의 예문에서는 하다의 ③과 やる의 D가 대응관계를 보이고 있다.

- (17) 授業を()。 ⇒ 「行う」 「する」 「やる」
テニスを()。 ⇒ — 「する」 「やる」
会議を()。 ⇒ 「行う」 「する」 —
入学式を()。 ⇒ 「行う」 — —
洗濯を()。 ⇒ — 「する」 —
むかしの映画を()。 ⇒ — — 「やる」

이와 같은 「やる」 「行う」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8) 아침이 되면 신문도 배달되고 텔레비전에서 뉴스도 할 테니까.
(『해』 p.159(상))
(18) '朝になれば新聞も配達されるし、テレビのニュースもやる。
(『海』 p.183(上))
(19) 텔레비전에서는 무슨 프로를 하고 있습니까? (『해』 p.333(하))
(19) 'テレビはなにか番組をやっているんですか? (『海』 p.419(下))

위의 예문의 의미에서는 선행명사 뉴스・番組에 의해 뜻이 한정되어 사용되어진 경우이다.

- (20) 두 사람의 관계와 아키요시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를 했다.
(『白』 p.225(상))
(20) '二人の関係や、秋吉との繋がりについて調査を行った。
(『白』 p.521)

- (21) 도우자이 전기 주식회사 도쿄 본사에서는 대개의 부서가 월요일 아침에 미팅을 한다. (『白』 p.156(상))
- (21) '東西電装株式会社東京本社では、大抵の部署が月曜日の朝にミーティングを行う。(『白』 p.451)

「行う」의 기본적인 의미로는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에 서는「する」와 교체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위에서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 실시·실행하다’로 의미가 한정되어 사용된다.

4.1.1.1 인칭대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 (22) “뻔한 속셈 다 알아. 날 부추겨서 실은 니가 하고 싶은 거겠지.” (『공』 p.177)
- (22) '「わかってるぞ。おれを焚きつけて、本当はおまえがやりたいんだろ う」 (『空』 p.162)
- (23) 이라부가 멀리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다음날 번지점프를 앞둔 오스트레일리아 관광객처럼 말했다. 자기가 하겠다는 말이야? (『공』 p.79)
- (23) '伊良部が遠い目をして、まるでバンジージャンプを翌日に控えたオーストラリア観光客のような言い方をした。自分がやる気にいるのだろうか? (『空』 p.19)
- (24) 나카타가 해야 할 일은, ‘입구의 돌’을 찾아내서 그것을 여는 일입니다. (『해』 p.143(하))
- (24) 'ナカタがやるべきは、この入り口の石を探しだして、それを開けることなのであります。(『海』 p.176(下))

행위동사로 やる의 본동사적 의미로서 선행요소가 인칭대명사가 왔을 경우에 사용되어진다.

4.1.1.2 동작성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25) “그럼, 오늘밤에 할까?” 이라부가 마치 마작이나 한판 할까하는 어투로 말했다. (『공』 p.153)

(25) ‘「じゃあ、今夜やろうか」 マージャンやろうか、と同じ口調で伊良部が言った。(『空』 p.140)

(26) 수업은 합니다. 하룻밤 못 잤다고 수업을 못 할 정도라면 제가 받은 월급을 도로 내놓겠습니다. (『도련님』 p.65)

(26) ‘授業はやります、一晩位寐なくって、授業が出来ない位なら、頂戴した月給を学校の方へ割戻します。(『坊』 p.55)

(27) 그래서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용돈을 벌기 위해 때때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27) ‘だから俺は大学入ってからも小遣かせぎに時々バイトをやった。(『그』 p.98)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이며, 스스로 앞서서 그 일을 한다는 느낌을 준다고 볼 수 있다.

4.1.1.3 비동작성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28) “틀리지 않게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화를 내다니, 이상한 선생님이로구나.” (『박』 p.55)

(28) ‘「間違えないように、慎重にやっているのに怒るなんて、おかしい先

生だな」 (『博』 p.60)

(29) 어디까지나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인간관계에 냉정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티』 p.36)

(29) 'あくまで雰囲気のことだけれど、人間関係にドライなやり方をこころえている、という感じだった。 (『T』 p.39)

문 속에 주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의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동작성 명사가 오는 경우에 그 빈도수가 많이 사용되어진다.

4.1.2 「なる」와 대응하는 경우

먼저, 「하다」와 「なる」의 사전적인 의미 기능을 표로 나타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하다」와 「なる」의 의미 기능

「하다」의 의미	「なる」의 의미
①정신적·육체적인 활동을 하다, 행하다.	A できている。/組み立てられている。
②명사와 함께 사용되고, 그 명사와 긴밀하게 사용되는 동사를 대신해 여러 종류의 의미를 나타낸다.	B ある状態からある状態に変わる。
③분야·직업 등에 종사하다.	C 役に立つ。
④표정·태도 등을 짓다. 취하다.	D がまんができる。ゆるすことができる。
⑤금액·가치를 나타낸다.	E 植物が実をむすぶ。
⑥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해서, 하여」의 형태로 이르다.	F 「お(ご)…になる」の形でその動作をする人に対する尊敬語。
⑦조사 「-고」나 인용문과 함께 사용되어 말하다	G 結果としてある数量・金額・時間・状態などに達する。
⑧열거된 명사나 대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가리어 말하다.	H ある関係・状態が生じる。

⑨생각하다.	I 物事が決まる。
	J 病気にかかる。
	K 何かをなし遂げる。
	L ある人によって作製される。
	M (形式的動詞) ある物事が結果として別の物事と同じであると見なされる。
	N (形式的動詞) もう少しで何かをしてしまうところまでいく。
	O (形式的動詞) 何かをする必要がある。
	P (形式的動詞) 何かをすることを禁止する。

일반적으로 「なる」라고 하면 「~になる」와 같이 변화의 의미로써 받아들인다. 그러나, 가장 많이 쓰여지는 표현의 의미로 변화의 의미를 들 수 있지만,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하다」와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보이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0) 예수가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의 일이라면 열중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오히려 호감을 갖는데 말이야.

(30) ‘キリストが MARIA とマルタの姉妹のことになると夢中になる、’
 というような話を読む度に、却って好感を持つがね。 (『夫』 p.88)

의미적으로 보면, (31)은 주어인 예수의 작용이 대상인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경우 「하다」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31) 결국 도쿄에 있는 첫째 동생이 나카타씨를 맡아서 일단 뒷바

라지하기로 했다. (『해』 p.379(상))

(31) '結局、東京にいる上の弟がナカタさんを引き取って、とりあえず面倒をみることになった。 (『海』 p.453(上))

(32) 하지만 그것은 이제 와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혼해 빠진 계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해』 p.411(하))

(32) 'でもそれは今では、なんの意味ももたないありきたりの階段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 (『海』 p.516(下))

(33) MUGEN은 12월 31까지 가게를 열기로 했다. (『白』 p.134(상))

(33) '『MUGEN』は、十二月三十一日まで店を開けることになっていた。

(『白』 p.430)

결과로서 어떤 상태에 이르다로 비동작성인 경우와, 예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주어의 의지적인 행위가 아닌 경우에 사용되어질 때도 있다.

(34) 사소한 표정의 변화에 나는 심장이 멎을 뻔하곤 했다.

(『키』 p.154)

(34) 'ちょっとした時の表情の動かし方とかは、よく私の心臓を止めそうになった。 (『キ』 p.159)

(35) 물론 울음을 터뜨릴 것 같기도 할 뿐, 실제로 울지는 않는다.

(『냉Rosso』 p.144)

(35) '勿論、泣きだしそうになるだけで、実際には泣きだしたりしない。

(『冷Rosso』 p.150)

형식적동사로 무엇인가 어떤 상태까지 같듯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다.

4.1.2.1 동작성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다음은 선행요소가 동작성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보자.

(36) 마지막으로 데이트 하던 날, 우리는 미술관에 갔다.

(『냉Blu』 p.157)

(36)′ 最後のデートになったあの日、ぼくたちは美術館に出掛けた。

(『冷Blu』 p.20)

(37) 그저, 자신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웨』 p.211)

(37)′ ただ、自分がまぬけになったような気がした。(『ウエ』 p.174)

(38) 어찌 된 셈인지 그때까지의 조심스러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는
대담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박』 p.223)

(38)′ 何故か急にそれまでの遠慮が消え、大胆になっていた。(『博』 p.243)

(39) 오전 중에 다 끝나면 오후에는 대부분 산책을 하였다. (『창』 p.47)

(39)′ 午前中に、ぜんぶやっちゃうと、午後は、たいがい散歩になるのだった。(『窓』 p.61)

동작의 행위를 나타내는 선행요소가 오는 경우 조사「に+なる」형태를 취해서 사용되어진다.

4.1.2.2 비동작성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다음은 선행요소가 비동작성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의 예이다.

(40) 나도 모르게 서글퍼지기도 하고, 냉정해지기도 한다. (『티』 p.80)

(40) ‘なんとなくもの哀しく、冷静になるのだった。 (『T』 p.87)

(41) 해가 바뀌어 책의 삽화와 장정 일을 의뢰받은 나는, 한동안 그 일에
만 몰두했다. (『웨』 p.133)

(41) ‘年が明けると、私は本の挿絵と装丁の仕事をもらい、しばらくそれに
かかりきりになった。 (『ウエ』 p.108)

(42) MUGEN은 1985년의 영업을 12월 31일 오후 6시에 종료했다.

(『白』 p.140(상))

(42) ‘『MUGEN』の一九八五年の営業は、十二月三十一日午後六時で終了
となった。 (『白』 p.436)

주어의 의지적인 행위의 영향으로서 결과가 완료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선행요소가 비동작성인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

4.1.2.3 관용구⁸⁾와 결합하는 경우

(43) 응, 문을 잠갔는데도 외출해서 잠그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해한다거나.

(『공』 p.272)

(43) ‘そう、鍵をかけたのに、かけ忘れたんじゃないかと外出先で不安になるとか。

(『空』 p.250)

(44) “아니, 특별한 용건은 아니었어. 그저 무슨 일이 있나 해서 걱정했었
진.” (『白』 p.221(상))

(44) ‘「いや、別に用はなかったんだ。ただ、何かあったのかと思って、心
配になってさ」 (『白』 p.219)

(45) 그렇게 신경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구나, 하

⁸⁾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

고 청년은 생각했다. (『해』 p.260(하))

(45) ‘これじゃあんな気むずかしい顔になってもまあしょうがないよな、と
青年は思った。 (『海』 p.325(下))

(46)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글을 쓰고 있으면, 나는 가끔 몹시 불안한
기분에 휩싸이곤 한다. (『상』 p.24)

(46) ‘こうして記憶を辿りながら文章を書いていると、僕はときどきひどく
不安な気持になってしまう。 (『ノ』 p.21(下))

선행요소가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경우이다. 위와 같은 관용구 용법은 한국어에는 사용하지 않는 なる만의 용법이
고, 형태로서는 명사+になる형을 취하고 있다.

4.1.2.4 부사와 결합하는 경우

(47) “4년 사귀었다는 여자는 어떻게 하고?” (『웨』 p.107)

(47) ‘「四年ごしの女はどうなったの?’ (『ウエ』 p.85)

위의 예문에서는 표 ②의 의미와 B, H가 같은 의미로서 표현되고 있고,
부사 どう와 결합해서 사용되어지는 경우이다.

4.1.3 「ある」와 대응하는 경우

다음은 「하다」와 「ある」의 기본적인 의미기능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5> 「하다」와 「ある」의 의미 기능

「하다」의 의미	「ある」의 의미
①정신적·육체적인 활동을 하다, 행하다.	A 物が存在する。
②명사와 함께 사용되고, 그 명사와 긴밀하게 사용되는 동사를 대신해 여러종류의 의미를 나타낸다.	B 人々の中に、ある特定の人が存在する。
③분야·직업등에 종사하다.	C 何かを所有していたり、特定の人、感情、考え、能力などを持っている。
④표정·태도등을 짓다. 취하다.	D ある物事に何かが備わっている、または、含まれている。
⑤금액·가치를 나타낸다.	E ある事柄の存在を認める。
⑥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해서, 하여」의 형태로 이르다.	F 時間、距離が存在する。
⑦조사 「-고」나 인용문과 함께 사용되어 말하다	G 重さ、広さ、長さなどをその属性として持っている。
⑧열거된 명사나 대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가리어 말하다.	H ある地位、状態の中に存在する。
⑨생각하다.	I 出来事が起こったり、催し、会合などが行われる。
	J 連絡などがもたらされる。
	K 言葉が書かれている。
	L (形式的動詞) 出来事や行為の生起の可能性を表す。
	M (形式的動詞) 人が何かを経験したことを表す。
	N (形式的動詞) ある動作の最中であることを表す。
	O (補助動詞) 動作、行為、作用、変化な

	どの結果が持続している。
	P（補助動詞）動作、行為などの効果、影響が今だに有効性を残している。

기본적으로 사물이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なる」와 마찬가지로 「ある」은 「하다」와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보이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48) 친구가 잘 탔다고 칭찬이라도 하면, 즉시 홍차나 커피를 타는 법에 대해 일장 강연을 하고,

(48) ' 友達が、そのいれ方を褒めでもすれば、そこで、紅茶とコーヒーのいれ方についてくさり講釈があって、 (『夫』 p.24)

(49) 11월에 소규모 전시회를 갖는데, 오늘은 그 일로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웨』 p.52)

(49) ' 十一月に小さな展覧会をすることになっていて、きょうはその打ち合わせがあるのだ。 (『ウエ』 p.40)

「ある」가 형식적동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표현하거나, 모임 등이 있을 때 위 예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격조사에 의해 한국어로 표현된 문장에서는 목적격을 취하는 반면, 일본어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에서는 가격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0) 세키 씨는 박식한 사람으로 아주 독특한 사람이기도 하다.

(50) ' 関さんは博学の人で、甚だユニークな人でもある。 (『北』 p.34)

「명사+で+ある」의 형태로서 그러하다고 판단하는 뜻을 나타내고, B와 같은 의미로 사람들 중에,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

4.1.3.1 어떤 사항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

(51) 빨간 셔츠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서 거절하든지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시간을 벌 것이지 그 말밖에 속아 넘어가서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했다지 뭐야. (『도련님』 p.139)

(51) 赤シャツから話しがあった時、断然断わるか、一応考えてみますと逃げればいいのに、あの弁舌に胡魔化されて、即席に許諾したものだから。 (『坊』 p.129)

(52) 작품을 읽어보니 주니어 취향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연애소설이라 안심했다. 그런 게 팔린다는 사실이 화가 나긴 했지만. (『공』 p.289)

(52) 作品を読んだら、ジュニアものに毛が生えた程度の恋愛小説だったので安心した。こんなので売れるのかという腹立たしさもあるが。 (『空』 p.265)

(53) 그것은 그가 수학에 바친 에너지의 집적이며 그의 수학적 능력이 고작 불행한 사고 하나에 손상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박』 p.214)

(53) それは彼が数学のために費やしたエネルギーの堆積であり、彼の数学的能力が不幸な事故によっても決して損なわれていないという、事実の証明でもあった。 (『博』 p.234)

위와 같은 예문에서는 주어의 행위가 대상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그 결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4.1.3.2 선행요소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54) 가구, 식기, 잡지, 의복, 회화...얼마간 가치가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

거의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 같은 물건도 있다. (『해』 p.389(상))

(54) '家具、食器、雑誌、衣服、絵画…、いくらかでも価値のあるものもあれば、

ほとんど無価値としか思えないものもある。 (『海』 p.465(上))

(55) 굵기는 덩치 큰 남자의 팔뚝만 했다. (『해』 p.392(하))

(55) '大きは大柄な男の腕くらいある。 (『海』 p.494(下))

(55)예문에서 주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성질을 말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어진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되어진다.

4.1.4 「とる」와 대응하는 경우

「하다」와 「とる」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6> 「하다」와 「とる」의 의미 기능

「하다」의 의미	「とる」의 의미
①정신적·육체적인 활동을 하다, 행하다.	A ある物を手に持つ。また、手に持って使う。
②명사와 함께 사용되고, 그 명사와 긴밀하게 사용되는 동사를 대신해 여러종류의 의미를 나타낸다.	B ある物を手に持って渡す。
③분야·직업등에 종사하다.	C 物や痛みなどを除いたり、外したりする。 また、人が身に着けている物を脱ぐ。

④표정・태도등을 짓다. 취하다.	D ある物を自分の所有物とする。
⑤금액・가치를 나타내다.	E 評価、責任などを身に負う。
⑥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어「해서, 하여」의 형태로 이르다.	F 食物を体内に入れる。または、体を休める。
⑦조사「-고」나 인용문과 함께 사용되어 말하다	G 動物を捕まえる。また、動植物を集める。
⑧열거된 명사나 대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가 리어 말하다.	H 料金を得る。また、金を集める。
⑨생각하다.	I 刊行物、料理などを注文して届けさせる。
	J 二つ以上の物、事の中から一つを選び出す。
	K 授業を受ける。
	L 人を迎え入れる。
	M ある事柄の確認をする。
	N ある物の一部を分けて別にする。
	O ある形態を備えている。
	P ノート、フィルム、録音(録画) テープなど に記録する。
	Q 言動、事態をある意味に解釈する。
	R 場所、時間を確保する、あるいは必要とする。
	S 特定の行為を(ある方法で) 行う。または、 ある方向に進む。
	T 物事の間にある関係がある。

아래 예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표 ①・②의 의미와 F・P가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6) 호텔 식당에서 극히 간단한 아침식사를 한다. (『해』 p.110(상))

(56) 'ホテルの食堂でなにかのしるしみたいな朝食をとる。

(『海』 p.122(上))

(57) “죄송하지만 지금 점심식사를 하던 중입니다.” (『해』 p.320(상))

(57) '「申しわけないけど、今昼食をとっているところなんです」

(『海』 p.380(上))

기본적으로 「とる」 는 어떤 것을 가지다 · 취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
어지나, 자신의 것으로 해서 체내에 넣어 섭취하다. 즉 「食べる」 의 의미
로써도 표현되어지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とる」 로서 표현되
어지기도 한다.

(58) 여성 변호사는 메모를 하면서 이거라면 대응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했다. (『白』 p.210(상))

(58) '女性弁護士はメモを取りながら、これなら攻め方はいくらでも
あると考えていた。 (『白』 p.505)

(59) 그래서 나는 매일 학교에 나가 강의에 출석하고, 필기를 하고,

(『상』 p.87)

(59) '僕は毎日大学に行って講義に出てノート을とり、 (『ノ』 p.102(下))

(60) 그럼, 이쪽에서 직접 연락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공』 p.281)

(60) 'じゃあ、こっちでコンタクト을とってもいいですか。 (『空』 p.258)

(61) 회사 동료에게 연락해서, 오늘 밤의 도쿄행 운전을 대신해 달라
고 부탁했다. (『해』 p.12(하))

(61) '仕事仲間に連絡을取り、今夜の東京行きの運転を代行してもらった。

(『海』 p.8(下))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선행명사가 「メモ、ノート、コンタクト、連絡」 처럼

한정되어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하다」에 대응하는 동사가 「する」 외에 기타 다른 동사로서 나타내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する」와 대응하는 경우, 나타내고 있는 의미의 공통성이 많은데 비해 다른 동사로 표현되는 경우 그 의미가 한정되어지는 것도 알 수 있다.

4. 2 그 외 대응하는 표현

4.2.1 관용적 표현

「하다」형과 대응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62) “정말이에요. 부인이야말로 조심하세요.” 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히사마쓰씨가 옆에서 말참견을 했다.

(62) ‘「ほんとよ。奥さんこそお気をつけなさい」と立会いの久松さんが、傍から口を出した。(『動』p.30)

(63) “지독한 사람으로군” 하고 친구가 말참견을 했다.

(63) ‘「ひどい奴がいたもんだね。」と友人が口を挟んだ。(『動』p.118)

(64) 그리고 학교에서 꼭 필요한 대화 말고는, 나는 거의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해』p.23(상))

(64) ‘そして学校でのどうしても必要な会話を捌べつにすれば、僕はほとんど誰とも口をきかなかった。(『海』p.18(上))

선행요소가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口」인 경우에 관용구로서 표현되고 있다.

(65) 마루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해』 p.169(상))

(65) '床に掃除機をかける。 (『海』 p.195(上))

(66) 마하의 음악을 들으면서 목욕탕을 청소하고 냄비를 닦고, 온 집안의 먼지를 털고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반』 p.126)

(66) 'バッハをBGMに風呂洗いとなべ磨きを終え、家じゅうにはたきをかけて、掃除機のアとでモップをかけ。 (『き』 p.124)

(67) 일요일이고 게다가 크리스마스이브인데, 무즈키는 바닥에 왁스칠을 하고 있다. (『반』 p.20)

(67) '日曜日で、しかもクリスマスイブだというのに、睦月は床にワックスをかけている。 (『き』 p.18)

(68) 먼지를 털어 구두를 신발장에 집어 넣고, 벗은 양복은 솔질을 하여 벽장에 넣는다. (『반』 p.98)

(68) '靴の埃を払って下駄箱に入れ、ぬいだ背広はブラシをかけてクロゼットにしまう。 (『き』 p.97)

(69) 나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짝 갈아입고 드라이로 머리를 손질하였다. (『키』 p.182)

(69) '私は起き上がって、シャワーを浴び、すっかり着替えると、ドライヤーをかけた。 (『キ』 p.187)

「かける」와 관용적으로 결합하는 선행명사는 도구나 기계 등을 사용해서 동작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70) 벌써 석 달이 되나, 요전에 파마를 하고 나서.

(70)' もう三カ月になるかな、この前パーマをかけてから。 (『予』 p.6)

(71) 박사는 식탁보를 다림질했다. (『박』 p.236)

(71)' 博士はテーブルクロスにアイロンを掛けた。 (『博』 p.257)

신체의 일부분에 부착하는 동작은 아니지만, 신체의 일부와 관련된 동작의 경우로서 (70)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かける」와 대응하고 있는 경우는 선행명사가 한정되어져 사용된 것이다.

(72) 그녀는 하얀 긴 소매 셔츠 위에 물고기 그림이 아로새겨진, 노란 털실 조끼를 입고, 가느다란 금목걸이를 하고, (『상』 p.263)

(72)' 彼女は白い長袖のシャツの上に魚の絵の編みこみのある黄色い毛糸のチョッキを着て、金の細いネックレスをかけ、 (『ノ』 p.45(下))

신체 일부분에 착용하는 경우에는 「かける」「つける」와 같이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73) 그러나, 이전에 한번 종이조각처럼 되었던 두 사람의 얼굴만은 도쿄로 돌아와도 목욕을 해도 더 이상 예전 대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73)' しかし、さっきいっぺん紙くずのようになった二人の顔だけは、東京に帰っても、お湯に入っても、もう元のとおりに治りませんでした。 (『注』 p.62)

(74) 목욕을 하고 있는데, 쇼코가 위스키 잔을 한 손에 들고 들어왔다.

(『반』 p.33)

(74)' お風呂に入っていたら、笑子がウイスキーグラスを片手にやって

来た。(『き』 p.31).

(75) 오후, 나는 목욕을 한다. (『웨』 p.52)

(75) '午後、私は昼風呂につかる。(『ウエ』 p.40)

(76) 목욕을 한 후에 마시는 생수는 꿈처럼 맛있다. (『반』 p.35)

(76) '湯あがりに飲むエビアン水は夢のようにおいしい。(『き』 p.33)

(77) 꽤나 조심성 없는 목소리가 들리고, 돌아보자 키가 아주 작고, 방금 목욕을 하고 나온 사람처럼 매끈매끈 붉은 얼굴에 두툼한 검정테 안경을 쓴 남자가 서 있었다. (『반』 p.48)

(77) 'ずいぶんと遠慮のない声がして、ふりむくととても背の低い、お風呂あがりみたいにつるんとした赤ら顔に太い黒緑の眼鏡をかけた男の人が立っていた。(『き』 p.45)

(78) “곤은 원래가 그런 놈이야.”샤워를 하면서 내가 말했다. (『반』 p.35)

(78) '紺はそういう奴なんだよ。シャワーをあびながら、僕は言った。(『き』 p.32)

(79) 샤워 좀 할게, 하면서 키미코가 욕실로 들어가고, 그제야 코우지는 가령의 의미를 이해했다. (『도쿄타워』 p.152)

(79) 'シャワー借りるわね、と言って喜美子が風呂場に入ったあとになって、ようやく、耕二は加齢の意味をのみこんだ。(『東』 p.157)

위의 예문을 보면 「入る」「つかる」「あがる」「あびる」「かりる」가 사용된 경우에는 선행요소가 お湯、お風呂、シャワー등과 고정화되어 관용적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80) 그는 장래 식물에 관계된 일을 하고 싶다 하였다. (『키』 p.33)

(80) '彼は将来、植物関係の仕事に就きたいそうだ。(『キ』 p.34)

(81) 그런 말을 다루는 일을 하는 자신이 자랑스럽다. (『공』 p.306)

(81) 'その言葉を扱う仕事に就いたことを、自分は誇りに思おう。

(『空』 p.281)

「就く」와 결합된 선행명사는 어떤 곳에 취업해서 주어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경우이다.

(82) 조명발을 잘 받으려고 얼굴에 분칠까지 했다. (『공』 p.121)

(82) '照明に映えるよう、顔にドーランを塗った。(『空』 p.57)

(83) 만일 그 전화의 주인공이 아오이가 아니라면, 나는 현재를 살아가는 아오이의 인생에 황칠을 하는 셈이 된다. (『냉Blu』 p.189)

(83) 'もしもあの電話の主があおいではなかった場合、ぼくは今という時代を生きるあおいの人生に泥を塗ることになる。

(『冷Blu』 p.192)

(82)는 선행명사 자체에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塗る」가 사용되어진 것이다. (83)에서는 선행명사 「泥」와 「塗る」와의 결합이 관용적으로 사용되어진 경우이다.

(84) 노파의 말이 끝나자, 하인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다짐을 했다.

(84) '老婆の話が終わると、下人はあざけるような声で念を押した。

(『羅』 p.70)

(85) “어깨가 쭈시지 않느냐?” 라고 대모가 무희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하고 있었다.

(85) '「肩は痛くないかい。」と、おふくろは踊り子にいくどもだめをお

していた。 (『伊』 p.66)

선행요소 「念、だめ」와 결합하는 경우 「押す」와 고정적으로 사용되어진 경우이다.

(86) 후미코에게는 그날 밤, 나는 거짓말을 했다.

(86) '文子にはその夜、俺は嘘をついた。 (『ユ』 p.134)

(87) 거짓말을 해서 벌을 피할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장난을 하지 말
일이다. (『도련님』 p.58)

(87) '嘘を吐いて罰を逃げる位なら、始めからいたずらなんかやるものか。

(『坊』 p.48)

(88) 마빈은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냉Rosso』 p.101)

(88) 'マーウ"は決して弱音を吐かない。 (『冷Rosso』 p.107)

(87)(88)은 선행명사에 따라서 관용적으로 고정화되어 「吐く」와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89) 꽃, 초, 서양식 식탁에서 자리의 순서를 정하는 법까지 노부코에게
가르쳐 주고 자신도 상담을 한다

(89) '花、蠟燭、西洋式の食卓の席次の決め方まで、伸子に教え、自分
も相談にのる。 (『夫』 p.130)

(90) 몸이 흙투성이인 요코 언니가 츠구미를 쳐다보면서 몸을 떨며
딸꾹질을 하고 있었다. (『티』 p.168)

(90) '陽子ちゃんが全身泥だらけの恰好で、震えながらつぐみを見つめて
しゃくり上げていた。 (『T』 p.183)

- (91) 그리고 나면 참석자들이 모두 만세삼창을 한다. (『도련님』 p.156)
- (91) '参列者が万歳を唱える。(『坊』 p.147)
- (92) 왜? 그렇게 왜 갑자기 전화해서 밀라노 일기만 묻는 거니?
(『냉Blu』 p.171)
- (92) 'どうして? ねえ、突然電話を掛けてきて、ミラノの天気を聞くだけ?
(『冷Blu』 p.174)
- (93) 아오이가 사는 밀라노의 전화번호로 그 후 세 번 전화했다.
(『냉Blu』 p.205)
- (93) 'あおいが住むミラノの電話番号にはその後三度電話を入れた.
(『冷Blu』 p.207)
- (94) 할아버지는 소파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키셀에 담배를 재면서,
난 네가 그림을 그렸으면 한다, 라고 중얼거렸다. (『냉Blu』 p.128)
- (94) '祖父はソファの上に胡坐をかき、キセルに煙草を詰めながら、た
だお前に絵を描いてほしいだけなのにな、と呟いた。
(『冷Blu』 p.130)
- (95) 흰 가운을 입은 뚱뚱한 남자가 1인용 소파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
아 있었다. (『공』 p.74)
- (95) 'そこには白衣を着た太った男がいて、一人がけのソファに胡坐をか
いていた。(『空』 p.14)
- (96) 다리를 건너, 낙원 추방 벽화가 있는 교회까지 걸음을 하였다.
(『냉Rosso』 p.254)
- (96) '橋を渡り、楽園追放の壁画のある教会まで足をのばした.
(『冷Rosso』 p.267)
- (97) “이야아, 하아아” 하고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막중
한 책임을 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도련님』 p.163)

- (97) 'いやあ、はああと気楽にうたってるが、その実は甚だ責任が重くって非常に骨が折れるとは不思議なものだ。(『坊』 p.155)
- (98) “놉주세요. 제가 복수를 하겠습니다.”(『공』 p.244)
- (98) '「離してください。おれが敵を討ちます。」(『空』 p.224)

「のる」「上げる」「唱える」「掛ける」「入れる」「かく」「のぼす」「折れる」「討つ」と 결합하는 선행명사는 관용적으로 고정화되어 사용되어진 경우이다.

- (99) 물론 제3자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白』 p.26(상))
- (99) 'もちろん、第三者には絶対見られんよう、細心の注意を払います。
(『白』 p.25)

그 이외에 선행명사 考慮, 尊敬, 配慮, 觀察등과 결합가능 하기 때문에 「払う」는 정신적, 심리적 활동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2.2 「～ている」형과 대응하는 경우

종지용법에 있어 「하다」형용사와 대응이 성립하는 サ変동사는 「～ている」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寺村秀夫(1984)는 「～ている」형식의 의미를 「継続」「結果の状態」「回顧」「形容詞的」으로 나누고 「形容詞的」용법의 특징은 주체의 시간적인 국면의 변화가 아니라 「主体のある様子を、他と比較して、特徴づけている点」이라고 하고 「～ている」형식이 형용사적으로만 쓰이는 동사를 형용사적 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ている」의 형식으로 「하다」형용사와 대응하며 상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寺村秀夫의 형용사적 동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다」형용사의 대응이 성립하는 サ変동사의 선행요소는 「한자어 명사」인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00) 그는 정신의학 분야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학자이며, 지금까지 여러 권의 뛰어난 저작을 발표했다. (『해』 p.112(상))

(100) '彼は精神医学の分野では日本を代表する学者であり、これまでも何冊かのすぐれた書物を発表している。(『海』 p.124(上))

(101) 아데렌 교외에서 열다섯 명가량의 십대 초반 소녀들이 사립 여학교의 소풍 도중에 의식을 잃었다가 얼마 후에 전원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해』 p.120(상))

(101) 'アデレーン郊外で、15人ほどの10代前半の少女たちが、私立女子学校の遠足中に意識を失い、しばらくあとになって全員が意識を回復しています。(『海』 p.134(上))

(102) 이 방의 분위기는, 나의 체온과 심장 박동수와 피의 농도와 감정의 파도에 호응한다. (『웨』 p.50)

(102) 'この部屋の気配は、私の体温や心拍数や、血液の濃度や感情の波に呼応している。(『ウエ』 p.38)

(103) 30분 후, 우리는 침실로 이동한다. (『웨』 p.32)

(103) '三十分後、私たちは寢室に移動している。(『ウエ』 p.23)

위의 예문은 선행요소가 「한자어 명사」인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100)~(103)이외의 대응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04) 「充実している-충실하다」	「乾燥している-건조하다」
「徹底している-철저하다」	「透徹している-투철하다」
「衰弱している-쇠약하다」	「混濁している-혼탁하다」
「優越している-우월하다」	「傑出している-걸출하다」
「窮乏している-궁핍하다」	「昏迷している-혼미하다」
「酷似している-혹사하다」	「困窮している-곤궁하다」

4.2.2.1 변화의 결과상태

현재의 상태에 대해 발화시, 한국어 「했다」形과 일본어 「シテイル」形이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한일 양국어 간의 대응관계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生越直樹(1995)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朝鮮語]		[日本語]
했다 haissda 形	→	シタ形
해 있다 hai 'issda 形	→	シテイル形
하고 있다 hago 'issda 形	→	シテイル形

(105)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다고 했다.

(『냉Blu』 p.169)

(105) '天気予報によると、今日は全国的に晴れているはずじゃなかったか。(『冷Blu』 p.171)

(106) 에나쓰 선수 같으면 85년에는 이미 은퇴했을 때니까, 복각판 글러브 카드가 있을 거야. (『박』 p.228)

(106) '江夏なら、八五年にはもう引退しているから、復刻版のグローブカードがあったはずだよ。 (『博』 p.249)

(105)(106)의 예문은 「했다」形과「シテイル」形이 어떤 사태를 목격했을 때 文이고, 변화의 결과상태보다도 변화의 성립 자체가 화자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고, (105)예문에서는 지금 현재 맞다라는 상태・(106)는 현재 이미 은퇴했다라는 상태일 때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 방식에 있어서 한국어 「했다」形에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는데 반해, 일본어 「タ」形에는 그 기능이 없으므로 「했다」形은 「ている」形을 사용해야 한다.

4.2.3 사역형과 대응하는 경우

「하다」형이 사역형과 대응하는 경우 한국어로는 「시키다」형과 「-게 하다」형으로 분류되고, 일본어는 일반적으로 「させる」형과 대응된다.

4.2.3.1 「시키다」형

남기심(1985)은 “우리가 그에게 일을 시켰다”와 같은 문장은, “우리가 그에게 책을 주었다”와 같은 문장과 구문적으로 차이점이 없고, 단 타동사 「시키다」가 使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시키다」형에 대해서도 「시키다」형태를 취하지 않는 동사도 적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문법적인 사동 용법이라고는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이, 히, 리, 기” 따위 형태에 대해서도 문법적인 사동 용법이라고는 말하기 어렵고, 파생 타동사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自動詞「시키다」형은 모두가 使役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命令의 의미를

나타내는 他動詞로 짐작된다.

현실적으로는 使役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지만 “하게 하다” 형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되게 하다”, “-받게 하다”, “-당하게 하다”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 動作主의 의사, 동작보다도 受動者의 狀態變化에 초점을 둔 표현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문맥에 의해서는 “-하다”, “-하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강제적 사역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여 행동을 허가하는 허용적 사역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사역자의 의사와 행동도 나타내는 “하게 하다” 형이 사용된다. 단지, 본래 “하게 하다” 형이 적절한 경우라도 현실의 事象과 그 언어표현이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형태적, 음운적인 간결함 때문에 “시키다” 형이 쓰이는 경우도 많다.

한편, 심리동사의 “시키다” 형은 강제적 사역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他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受動者의 의사를 무시하고서 그 정신활동을 말이나 행동으로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키다” 형이 항상 “-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이지만 여기에는 피사역자가 經驗者인 경우와 動作主인 경우도 있다.

經驗者일 경우에는 스스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外部에서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역자의 일방적인 의사, 동작을 나타내는 “시키다” 형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진다.

動作主일 경우에는 관용적으로 “하게 하다” 형보다 “시키다” 형이 사용되는 동사나, 사역자가 피사역자의 의사를 무시해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 이외에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다.

4.2.3.2 「-게 하다」형

사동법 표현 형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게 하다」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i) a. 철수가 영자(*가, *에게, 를) 웃긴다.
b. 어머니가 아이(*가, *에게, 를) 젓을 먹인다.
- (ii) a. 부모가 아이(*가, *에게, 를) 공부시킨다.
b. 정부가 교수(*가, *에게, 를) 연구시킨다.
- (iii) a. 철수가 영자(가, *에게, 를) 웃게 한다.
b. 어머니가 아이(가, *에게, 를) 젓을 먹게 한다.

“-게 하다”에 의한 사동형은 가장 일반성 있는 사동형으로 보고 있다. “허용”과 “사동”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양자가 동일 의미이면 같은 기저구에서 유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게 하다”형을 바탕으로 한 구조를 기저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Shibatani(1973)는 양자가 동의적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해서 Chomsky(1970)가 제시한 직접 사동법과 간접 사동법의 개념을 한국어에 적용해서, 단형인 (i)·(ii)형으로, 장형인 경우에는 (iii)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박병수(1974)도 양형의 동의성을 부정하였다. 제시한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iv) a. 존이 석달 된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柴谷:1973)
b. 존이 석달 된 아이에게 옷을 입히었다.
- (v) a. 대통령이 월남 양민을 죽게 했다. (박병수:1974)

- b. 대통령이 월남 양민을 죽이었다.
- (vi) a. 켈리가 월남 양민을 죽게 했다. (박병수:1974)
- b. 켈리가 월남 양민을 죽이었다.

(iv)의 a文은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도록 간접 사동형으로서 작용한 것이고, b文은 행위자인 존이 아이의 옷을 직접 입혀 준 것이므로 그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Shibatani(1973)은 주장하였다. (v)의 경우는 a文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vi)의 경우는 켈리가 직접 하수인이므로 b文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양자가 나타내는 의미는 차이가 있다고 박병수(1974)는 주장하였다. 장형인 “-게 하다” 사동형은 다른 사동형보다 그 의미 영역이나 사용 범위가 넓고 다의적인 면을 내포하는 것으로서는 무엇보다도 “하-”의 기능 때문이라 보고 있다. “-게 하다”의 “하-”가 가지는 기능은 사동법이 가진 모든 의미와 양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열쇠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2.3.3 「させる」형

山田(1908)는 사역태를 동사에 「발동성 간접작용」을 표현하는 複語尾에 붙어서 나타내는 것과, 수동의 「상태성 간접작용」을 나타내는 것과 대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발동성 간접작용에는 「干与作用」·「使令作用」으로 나타내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干与作用」의 예문으로서 「母が子を眠らせる」와 같이 피사역자에게 무엇인가 하도록 사역자가 영향을 주어서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使令作用」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어떤 결과를 실현하도록 계획해서 수동자가 그 동작을 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干与作用」용례는 다음과 같다.

(107) 어떡하든 나리타 씨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그의 잔에 술을 따르

고 있다. (『白』 p.80(상))

(107) ' 何とか成田を黙らせようと、彼の猪口に酒を注いでいる。

(『白』 p.378)

(108) 가지의 흔들림에 맞추서, 머리를 아래위로 피딱피딱 가볍게 올렸
다 내렸다 하는 거야. (『해』 p.74(하))

(108) ' 枝の揺れにあわせて頭を上下させるの。ひょいひょいと。

(『海』 p.87(下))

(109) 여름이 오면 구청 직원이 장어를 먹게 해주고, 설날이 되면 구청
직원이 떡을 나누어준다. (『해』 p.153(상))

(109) ' 夏が来れば区の人がウナギを食べさせてくれるし、正月になれば区の人がお餅をくれる。 (『海』 p.175(上))

(110) 해서, 차라리 여기서 죽어 그 여자를 평생 후회하게 해줄까.

(110) ' で、いっそのこと、ここで死んであの女に一生後悔させてやるか。

(『待』 p.48)

「使令作用」 용례는 다음과 같다.

(111) 오전 열한 시에 와서 도련님에게 점심을 해주고, 방 청소를 하
고, 장을 봐오고, 그리고 저녁밥을 지어놓고 일곱 시에 돌아가면
됩니다. (『박』 p.9)

(111) ' 午前十一時に来て、義弟にお昼を食べさせ、部屋の中を清
潔に整え、買物をし、晩ご飯を作って夜の七時に帰る。

(『博』 p.9)

松下(1930)는 사동에도 「自動の使動」과 「他動の使動」이 있다고 하고 있
다. 다음의 예를 보자.

- (vii) a. 下女二夜使二行かせる
 b. 下女ヲ夜使二行かせる
 (viii) a. 子供二牛乳ヲ飲ませる
 b. 子供ヲ牛乳ヲ乳ませる

a文은 「自動の使動」으로 事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이고, b文은 「他動의使動」으로 人에게 중점을 둔 사역 표현이다.

宮地裕(1969)는 사역의 의미를 5가지로 분류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①だれかがだれかを動かして、別のだれかに対して何かするようにする意 (こ
 れが典型的な使役の意味である、とする)
 ②だれかがだれかを動かして、何かするようにする意
 ③だれかがだれかの動作を許容すること
 ④だれかがだれかの自由放任をみとめること
 【例】太郎を九時まで寝かせておいた。
 ⑤だれかの不随意的ことや迷惑なこと
 【例】長女を早く死なせてから臆病になった。

黒田(1965)는 사역문에 ‘ㄱ사역문’(강제)과 ‘ㄴ사역문’(허용·임의)의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심층구조와 표층 구조에서의 조사 배치를 논하고 있다. (강제·명령)의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12) 그렇게까지 해서 유행에 따르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일까.

- (112) 'そうまでして、流行に追随させるのが親の愛というものなのか。
(『北』 p.54)
- (113) 미국에서 본사의 관계자가 오면 반드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노
부코가 만든 요리로 대접하게 한다.
- (113) 'アメリカから本社の関係者が来れば、必ず自宅に連れて来て、
伸子の手造りの料理で接待させる。(『夫』 p.130)
- (114) 부모를 데리고 와서 큰 소리고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해』 p.123(상))
- (114) '両親を連れてきて、大きな声で名前を呼ばせました。
(『海』 p.138(上))
- (115) 유키호도 만약 그대로 공립 중학교에 가게 했다면 아마 내년은
입시공부로 아주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白』 p.213(상))
- (115) '雪穂もねえ、もしあのまま公立の中学に行かせていたら、たぶ
ん来年は受験勉強でもっと大変だったと思うんです。(『白』 p.210)
- (116) 에리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캔 맥주와 함께 들고 갔다.
(『공』 p.96)
- (116) 'エリに料理を作らせ、缶ビールと一緒に持参した。(『空』 p.34)
- (117) “이봐, 이쪽도 몸수색을 해야 할 거 아냐.” (『공』 p.57)
- (117) '「おい、こっちにもボディチェックをさせろ」 (『空』 p.108)
- (118) 잠을 깨워야만 한다. (『해』 p.94(하))
- (118) '目を覚まさせなくては。(『海』 p.112(下))
- (119) 눈을 감고 한쪽 다리로 서 있게도 했습니다. (『해』 p.59(상))
- (119) '目をつぶって片足立ちをさせました。(『海』 p.61(上))
- (120) 저는 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 번 규칙을 강조했습니다.
(『해』 p.36(상))

(120) '私はみんなを集めてそのルールをあらためて徹底させました。

(『海』 p.34(上))

(121) 그리고 집안일을 거들게 하면서 그를 키웠다. (『해』 p.376(상))

(121) 'そして家の手伝いをさせながら彼を育てた。(『海』 p.449(上))

(122) 예의 사건도 있었고 해서, 가능하면 오래 있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박사가 용납하지 않았다. (『박』 p.192)

(122) '例のいざこざの件もあり、あまり長い時間ルートを出入りさせるのはよくないと思ったのだが、博士が譲らなかった。

(『博』 p.209)

(허용·임의)의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23) 아이들에게 적당히 버섯을 따게 하고, 야외 실습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내고 산을 내려가려고 생각했습니다.

(『해』 p.179(상))

(123) '適当に子どもたちにキノコを集めさせ、野外実習はなるべく早く切り上げて、山を下りようと思いました。

(『海』 p.208(上))

(124) 좋아하는 음식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해』 p.123(상))

(124) '好きな料理の匂いを嗅がせました。(『海』 p.138(上))

(125) 아저씨가 지압 해 준 덕분에 나는 훨씬 몸이 편해졌거든. 조금 짬은 보답을 하게 해달라구. (『해』 p.21(하))

(125) 'でもな、ナカタさん、あんたの指圧のおかげで俺はずいぶん楽になった。少しくらいのお礼はさせてくれ。(『海』 p.20(下))

(126) “엑스퍼트 시스템이란 인공지능 용도의 하나로 전문가를 대신 하여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 (『白』 p.158(상))

- (126) ' 「エキスパートシステムというのは人工知能の用途の一つで、専門家の代わりをさせようというものだ」 (『白』 p.453)
- (127) 정월 설 동안은 기숙사 식당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나는 나오키의 아파트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 (『상』 p.67)
- (127) ' 正月のあいだ寮の食堂は閉ったので僕は彼女のアパートで食事をさせてもらった。 (『ノ』 p.77(下))
- (128) 그냥 가와무라 씨라고 부르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해』 p.139(상))
- (128) ' ただカワムラさんと呼ばせていただきたいだけなのです。
(『海』 p.157(上))
- (129) 거기서 눈에 띄는 목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 (『해』 p.136(상))
- (129) 'それで目についた牧場に行って、そこで働かせてほしいって頼みこんだ。 (『海』 p.153(上))
- (130) 교정이라는 장소가 오히려 우리를 대담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냉Blu』 p.133)
- (130) 'そこが校内だということがむしろ二人を大胆にさせたのかもしれない。 (『冷Blu』 p.135.)
- (131) 나는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반』 p.176)
- (131) '私は別れなくてもいいって言ったんだけど、睦月ははっきりさせたかったみたい。 (『き』 p.174)
- (132) “아니, 질문은 내가 하죠. 왜 그만둔 파출부의 아이가 이 집에 드나드는 거죠.” (『박』 p.167)

(132) ' 「反対に私から質問させて下さい。どうして辞めた家政婦さんの子供が、義弟のところへやって来る必要があるのでしょうか？」

(『博』 p.183)

(133) “자기는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사람 곤란하게 하는 그런 농담만 해.” (『냉Blue』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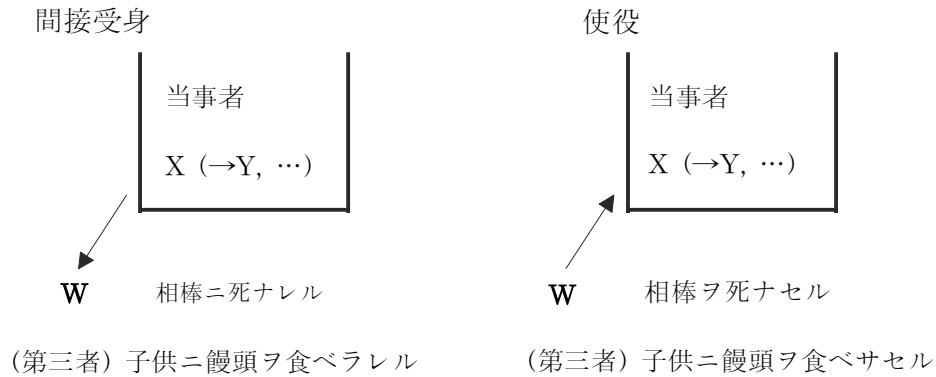
(133) ' 「あなたって人は、場所もわきまえないで、わたしをこまらせる冗談ばかり」 (『冷Blue』 p.11)

(134) “미안해, 같이 식사를 하게 해서.” 나미에가 미안한 듯이 말했다.

(『白』 p.40(상))

(134) ' 「ごめんね、こんな食事に付き合わせちゃって」 奈美江がすまなそうにいった。 (『白』 p.337)

柴谷(1976)는 사역을 “유발사역”과 “허용사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발사역의 형태로서 「YヲV-サセル」일 경우에는 Y의 의지를 무시한 표현이지만, 「YニV-サセル」일 경우에는 Y의 의지가 존중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허용사역에 있어 「적극적인 허용」에서는 「YニVサセル」가 자연스러운 文이 되고 「소극적인 허용」은 「Yヲ～」文이 자연스럽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寺村秀夫는 사역 구문의 성립사정과 본질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4.2.4 기타표현과 대응하는 경우

「하다」와 대응하는 표현에는 다음 예문과 같이 『サ』変동사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言う」와 대응관계를 보이고 있다.

- (135) a. 농담/불평/잔소리/헛소리/빈말/겉치레말/잠꼬대/혼잣말을 하다.
 b. 冗談/文句/小言/うわ言/そら言/お世辞/寢言/独り言を言う。

(135) b의 일본어 명사는 발화의 내용적인 면이나 상황적인 면을 나타내며 말의 표출 행위를 나타내는 「言う」와 결합하여 발화 행위를 나타내게 된다.

(136) 나도 같은 도쿄출신이라 될 수 있으면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오랫동안 선생과 함께 이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제법 사람다운 말을 했다. (『도련님』 p.77)

(136) ‘僕も及ばずながら、同じ江戸っ子だから、なるべく長く御在校を願って、御互に力になろうと思って、これでも蔭ながら尽力しているんですよと野だが人間並の事を云った。(『坊』 p.66)

위와 같이 「농담, 불평, 잔소리, 헛소리, 빈말, 겉치레말, 잠꼬대, 혼잣말을 하다」로 사용된 예문처럼 『サ』 변동사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言う」가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은, 신체의 일부분에 부착하는 동작에 있어서의 대응 예이다.

- (137) 뼈가 도드라진 손목에, 언젠가 코우지가 선물한 골드 체인팔찌가 감겨 있다. “그거, 항상 하고 다녀요?” (『도쿄타워』 p.291)
- (137) ‘骨の突起した手首に、いつか耕二の贈った金の鎖がまきついて
いる。「それ、いつもつけてるの?」 (『東』 p.303)
- (138) 지나와 파올라는, 보석이란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
다고 하는데, (『냉Rosso』 p.132)
- (138) ‘ジュエリーは日常的につけていなくては駄目だというのがジ
ナとパオラの持論で、 (『冷Rosso』 p.137)
- (139)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다. (『白』 p.205(상))
- (139) ‘片方の目に眼帯をつけているのだ。 (『白』 p.501)

다음은, 주어의 행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대응 예
도 있다.

- (140) “오랜만에 만난 거라 그냥 헤어지기도 그래서 가까운 레스토랑
에서 가볍게 식사나 하고 왔어.” (『白』 p.190(상))
- (140) ‘「久しぶりだったんで、食事でも一緒にどうかってことになっ

て、近くのレストランで軽く済ませてきちゃったんだ」

(『白』 p.485)

(141) “청소라면 지난주에 다 했잖아.” (『白』 p.66(상))

(141) ‘「掃除なら、先週済ませたじゃないか」 (『白』 p.363)

이와 같이 「하다」에 대응하는 것에는 『サ』変동사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言う」와 대응관계를 보이고 있고, 신체의 일부분에 부착하는 동작에 있어서의 대응예도 있고, 주어의 행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대응 예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한일 양국어의 「하다」 「する」 동사는 가장 기본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하고 일대일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본고의 고찰에 있어서는 「する」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어 「하다」는 단순동사 「やる」·「なる」·「ある」·「とる」와 그 밖의 「관용적 표현」 「～ている 표현」 「사역표현」 「기타표현」과의 대응이 중심으로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비율은 「やる」·「なる」·「ある」·「とる」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중심으로 대조·분석을 하였다. 「하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표현에서 총 용례 수 902개 중에 본고에 인용한 수는 143개, 비율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동사 「やる」의 용례 수는 121, 「なる」의 용례 수는 82, 「ある」의 용례 수는 95, 「とる」의 용례 수는 24로 나타나고 있었다. 단순동사와 대응할 때 「やる」의 경우 선행요소가 인칭대명사, 동작성 명사, 비동작성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なる」의 경우는 동작성 명사, 비동작성 명사, 관용구, 부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았고, 「ある」은 주어의 행위가 대상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그 결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 선행요소가 특징이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결합하는 경우를 보였다. 「とる」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지다, 취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나, 선행요소에 따라서는 자신의 것으로 해서 체내에 넣어 섭취하다. 즉 「食べる」의 의미로서도 표현되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하다」와 대응하는 일본어 동사와 문맥·상황에 따른 대응양상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선행요소에 따라서는 「하다/ する」와 대응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국어의

「하다」에 대응하고 있는 일본어 표현이 어떠한 특징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참고 문헌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浅野鶴子 (1971) 『外国人のための基本語用例辞典』 文化庁
- 서정수 (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森田良行 (1977) 『基礎日本語辞典』 角川書店
- 生越直樹 (1982) 「日本語漢語動詞における能動と受動—朝鮮語 hata 動詞との対照—」 『日本語教育学会』 48号
- 寺村秀夫 (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I』 くろしお出版
- 심재기 (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김영희 (1984) 「“하다”; 그 대동사설의 허실」 『배달말』 9
배달말학회
- 大阪外国語大学朝鮮語研究室編 (1986) 『朝鮮語大辞典 下』 角川書店
- 小泉保 (1989) 『日本語基本動詞用法辞典』 大修館書店
- 배덕희 (1989) 「「되다」と「なる」について」 『상명대학교 논문집』
- 양명희 (1990) 「현대국어 동사 ‘하-’의 의미와 기능」 『국어연구』 제 96호. 국어연구회
- 김완식 (1993) 「동사 『하다』와 『する』의 대조연구」 『晩光 朴熙泰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 정원수 (1994) 『국어의 단어 형성론』 한신문화사
- 生越直樹 (1995) 「朝鮮語했다形、해 있다形(하고 있다形)と日本語シタ形、シテイル形」, 『国立国語研究所報告 110』 研究報告集 16
- 전정례 (1998) 「‘하다’와 ‘suru’의 대조연구」 『인문과학논총』 제30집
- 남영복 (2000) 「대격명사+하다/する」의 대조연구」 『日語日文学』

제14집 대한일어일문학회

—— (2003) 『日本語「する」와 韓國語「하다」의 對照研究－意味・用法의 相異點을 中心으로 해서－』 韓國外國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2004) 「「先行要素+する」와 「선행요소+하다」의 대조연구－「선행요소+하다」가 형용사용법을 가지는 경우－」 한국일어일문학회

鷹野次長 (2004) 『外國人을 위한 즐거운 日本語辭典』 語文學社



예문 출전

- (予) 赤川次郎 2004 『日韓대역문고20 予約席』 다락원
- (羅) 芥川龍之介 2002 『日韓대역문고2 羅生門』 다락원
- (待) 阿刀田高 2003 『日韓대역문고8 待っている男』 다락원
- (ウエ) 江國香織 2006 『ウエハースの椅子』 角川春樹事務所
- (き) 江國香織 1991 『きらきらひかる』 新潮文庫
- (東) 江國香織 2001 『東京タワー』 新潮文庫
- (冷Rosso) 江國香織 1999 『冷静と情熱のあいだRosso』 角川文庫
- (ユ) 遠藤周作 2003 『日韓대역문고13 ユーモア傑作選』 다락원
- (動) 大岡昇平 외/김종덕訳註 1998 『日韓대역문고9 動物』 다락원
- (博) 小川洋子 2003 『博士の愛した数式』 新潮文庫
- (空) 奥田英朗 2008 『空中ブランコ』 文春文庫
- (伊) 川端康成 2001 『日韓대역문고1 伊豆の踊子』 다락원
- (窓) 黒柳徹子 1991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講談社
- (夫) 曾野綾子 2003 『日韓대역문고19 夫婦の情景』 다락원
- (日) 立原正秋(外)/다락원 일문어 출판부 訳註 2006 『日韓대역문고11 日本の名隨筆』 다락원
- (冷Blu) 辻 仁成 1999 『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角川文庫
- (坊) 夏目漱石 2007 『坊っちゃん』 新潮文庫
- (白) 東野圭吾 2008 『白夜行』 集英社文庫
- (北) 三浦綾子 2005 『日韓대역문고12 北国日記』 다락원
- (注) 宮沢賢治 2007 『日韓대역문고5 宮沢賢治の注文の多い料理店』 다락원
- (海) 村上春樹 2002 『海辺のカフカ(上)・(下)』 新潮文庫

(ノ) 村上春樹 2008 『ノルウェイの森(上)・(下)』 講談社文庫
 (キ) 吉本ばなな 1991 『キッチン』 角川文庫
 (T) 吉本ばな나 2003 『TUGUMI』 中公文庫

(창) 구로야나기 테즈코 2000 『창가의 토토』 프로메테우스 출판사
 (도련님) 나쓰메 소세키 2006 『도련님』 문예출판사
 (상) 무라카미 하루키 2008 『상실의 시대』 문학사상사
 (해) 무라카미 하루키 2008 『해변의 카프카(상)・(하)』 문학사상
 (냉Rosso) 에쿠니 가오리 2003 『냉정과 열정사이 Rosso』 소담출판사
 (도쿄타워) 에쿠니 가오리 2005 『도쿄타워』 소담출판사
 (반) 에쿠니 가오리 2003 『반짝반짝 빛나는』 소담출판사
 (웨) 에쿠니 가오리 2004 『웨하스 의자』 소담출판사
 (박) 오가와 요코 2004 『박사가 사랑한 수식』 이레
 (공) 오쿠다 히데오 2008 『공중그네』 은행나무
 (키) 요시모토 바나나 2007 『키친』 민음사
 (티) 요시모토 바나나 2007 『티티새』 민음사
 (냉Blu) 츠지 히토나리 2003 『냉정과 열정사이 Blu』 소담출판사
 (白) 히가시노 게이고 2008 『白夜行(상)・(중)』 태동출판사

※작품의 앞에 ()로 제시된 부분은 본고에서 용례출전의 제목을 말한다.